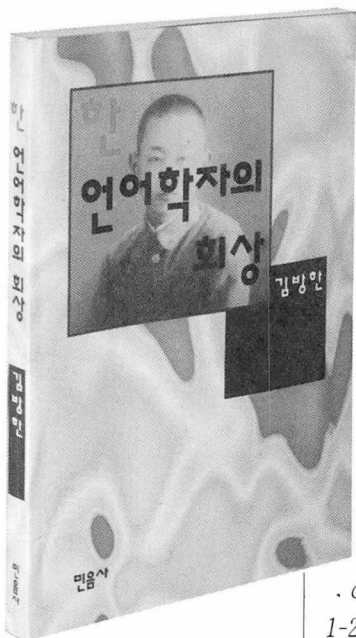


사라져버린 나의 고서 여섯권

책의 값어치가 보물 같던 시절

김방한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언어학의 길을 열고 역사를 일궜은 김방한 교수(72)의 자서전이다. <언어학 논고> <한국어의 계통> <언어학의 이해> 등 언어학 분야에 보석같은 책만을 내놓았던 김교수가 걸어난 학문의 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가운데 책에 관한 잊지 못할 일화를 적은 글을 발췌해 옮긴다.

민음사/A5신/252면/8000원

학생 시절 나의 고서점 뒤지기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3학년 2학기 무렵으로 기억하고 있다. 어느날 혜화동 고서점에 들렀다. 혜화동 로터리, 현재 상업은행 지점이 있는 뒷부근에 고서점이 있었다. 그다지 큰 서점은 아니었으나 학교에서 가깝고 비교적 좋은 책도 나오는 곳이라 자주 들르는 곳이었다. 그리고 서점 주인도 내가 언어학과 학생이고 언어학 관계 책을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본 언어학자의 장서도 입수

어느날 들렀더니 주인은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색을 하며 한 꾸러미 책을 내 앞에 내놓았다. 순간 나는 놀랐다. 상상치도 못한 보물을 만난 듯했다. 다음 여섯권의 책이었다.

▲Ch. Bally, *Linguistique générale et linguistique française* 《일반언어학과 프랑스언어학》 ▲A. Dauzat, *La géographie linguistique* 《언어지리학》 ▲A. Norren-N. Pollak *Wissenschaftliche Betrachtung der Sprache* 《언어의 과학적 고찰》 ▲A. Meillet, *Introduction à l'étude comparative des langues indo-européennes* 《인구어어 비교연구 서설》 ▲A. Meillet, *Linguistique*

. comparative et linguistique générale 1-2 《비교언어학과 일반언어학》 ▲A. Meillet, *La méthode comparative en linguistique historique* 《역사언어학에 있어서의 비교방법》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들 책 중에 '소림장서' (小林藏書)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었던 점이다. '소림' (小林)이란 '고바야시 히데오 小林英夫' 교수가 틀림없을 것이고 앞서도 언급한 바 있으나 그는 세계 최초의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를 번역한 일본 언어학자로서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있다가 해방 후 일본으로 돌아간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림장서' 인이 찍힌 것은 고바야시 히데오 교수의 책임이 거의 확실하다. 해방 후 그의 장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아마 좋은 책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 일부가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었다. 그는 소쉬르 연구와 더불어 바이어의 《언어와 생활 *Le langage et la vie*》을 《언어 활동과 생활 (言語活動と生活)》로 번역하기도 했다. (해방 후 1970년에는 《일반언어학과 프랑스 언어학》을 일본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책값은 엄청난 금액이었다. 당시 언어학 관계의 책은 부르는 게 값이었다.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어서 대금 일부는 내가 가지고 있던 책과 교환하기도 했다. 많은 책을 주었는데 그중에는 《동양사조 (東洋思潮)》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당시 10여권에 달하는 강좌 형식의 《동양사조》 한질 값은 상당한 액수였다. 이렇게 구독한 책을 나는 대학 도서관 제본부에 맡겨서 새로 제본하고 서명도 금박이로 넣었다. 당시 표지에 영어 이외의 외국어 문자를 찍어 넣을 수 있는 곳은 아마 대학 도서관 제본부뿐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 책들을 그렇게 아꼈다. <중략>

내가 그렇게 아끼고 열심히 읽던 메이예를 비롯한 도자, 바이어 등의 저서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지닌 책이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으로 피난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남아서 집을 지켰다. 우리들의 신흥 살림을 돌보아 준다고 서울에 와 있던 나의 유모는 집을 지킨다고 혼자서 남아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 덕택으로 우리 살림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의 책도 대부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웬일일까? 내가 그토록 아끼던 여섯권의 책만은 보이지 않았다. 유모도 우리가 피난간 사이 하도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왜 그 책들만이 없어졌단 말인가?

내 장서인이 찍힌 책을 발견

수복 직후 김선기 선생의 통지를 받고 상경한 나는 곧 언어학과 강사가 되었다. 여기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상경한 나는 곧 강의 시간표를 짜고 담당 교수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언어학과 운영을 도왔다. 강의 계획을 작성하던 중 '방언학' 강의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도자의 《언어지리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언어학 연습 시간에 읽은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책을 가지고 있었으나 없어졌다는 것 등을 이야기했다. 결국 도자의 그 책을 교재로 채택하기로 했으나 문제는 도서관에서 어떻게 그 책을 찾아내는데에 있었다. 당시 도서관은 문자 그대로 엉망이었다.

이런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김선기 선생은 걱정할 것 없다는 것이었다. 부산으로 피난했을 때 귀중한 책을 상당히 구했는데



김방한 교수.

그 중에는 도자의 그 책도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도미할 때 동아대학 도서관에 책을 모두 팔고 갔으니 그것을 대출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얼마 후 그 책이 연구실 내 책상 위에 놓이게 되었다.

나는 검은 책 두꺼운 표지의 책을 보는 순간 낯익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손에 들고 표지를 열자마자 나는 놀랐다. 거기에는 너무도 생생하게 '운성장서' (韻星藏書)라는 나의 장서인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닌가! ('운성'은 내가 중학교 시절에 지은 아호이다) 그 책은 난리 속에서 혜화동 내 집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김선기 선생에게 발견되어 동아대학 도서관으로 팔려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온 것이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책은 지금도 동아대학 도서관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안사균군 하숙집에 들른 일이 있었다. 안군은 당시 언어학과에서 독일어 강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혜화동 로터리, 현재의 상업은행 지점 부근에 하숙하고 있었다. 그날 나는 안군과 이야기하면서 안군의 서가를 바라보다가 크게 놀랐다. 대단히 낯익은 책 한권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그 책을 뽑아 보았다. 바이어의 《일반언어학과 프랑스 언어학》이었다. 표지를 열자마자 '운성장서(韻星藏書)'라는 내 장서인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닌가!

영국 외교관의 동아시아 여행기

G. N. 커즌 지음 《100년 전의 여행...》을 읽고

이창훈 · 한남대 정치학과 교수

이 책 어디서 구했는가 하고 안군에게 물었다. 안군 대답은 피난간 부산의 어느 서점에서 샀다는 것이다. 내 장서인을 설명하고 내 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내게 되돌려줄 것을 간청했다. 그러나 안군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모두들 책에 대한 애착심이 그렇게 강했던 것이다. 나는 단념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 책이 갈 곳으로 갔구나 생각하니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다. (이 책은 고바야시 히데오 교수의 정성과 열정이 숨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후일 고바야시 히데오 교수의 일본어 번역본 《일반 언어학과 프랑스 언어학 (一般言語學とフランス言語學)》(岩波書店, 1970)이 출판되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책 여섯 중에서 두 권의 행방을 알게 되었다. 나머지 책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내 책이 해화동에서 부산까지 흘러갔을까? 나는 지금까지도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여섯권 중 두권이 부산까지 흘러간 것을 생각하면 나머지 네권도 부산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첫째는 그 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둘째 그 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나의 많은 장서 중에서 이 여섯권의 책만이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 해화동 로터리에 있던 고서점과 관계가 있던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내가 그 책을 샀을 때 책값의 일부를 《동양사조》 등의 책으로 계산했음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고 그때 내 책을 가져가기 위해서 책방 사람이 우리집에 왔다가간 것을 생각해 보면 무언가 가닥이 잡히는 듯하다. 그 책을 판 사람은 그 책의 희귀성과 값어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난리 속에서 많은 책보다는 값이 나가는 몇권의 책을 들고 다니기가 편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 장서 중에서 그 여섯권만이 없어진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

커즌(1859-1925)은 금세기 초에 크게 활약한 영국의 정치가다.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짓는 베르사이유조약 체결 무렵부터 영국 의무장관의 직을 맡은 그는 현재의 폴란드 동부 국경과 거의 비슷한 '커즌 라인'을 제의한 것으로 유명하며, 1923년에는 로잔조약 체결을 주도하여 전후 터키문제를 매듭짓는 데 공헌했다.

비교적 잘 알려진 일이지만 커즌은 인도 총독(1899-1905)을 역임했다. 39세에 인도 총독에 취임한 커즌은 빅토리아 여왕 재임 말기의 제국주의가 가미된 낭만적이며 총명한 총독이었다. 그는 아시아의 영국 식민지에서 나는 부와 권위야말로 대영제국 발전의 초석이라고 믿을 만큼 동양에 현혹된 사람이었다.

커즌은 또한 지칠 줄 모르는 여행가이기도 했는데, 그가 탁월한 아시아전문가로 평가받는 것은 인도 총독이라는 행정상의 경험 이전에 아시아 내륙 깊은 곳까지 몸소 찾아 실제로 본 것을 해박한 지식과 정교한 분석적 태도로 기록해 후세에 남겼기 때문이다.

커즌은 특히 동아시아의 신비로운 매력에 빠져 19세기 말 이 지역을 두차례나 방문하고 한국·중국·일본의 모습을 소개한 《극동의 제문제(Problems of the Far East)》라는 책을 저술했다. 이 책이 《백년

빅토리아 여왕 재임 말기의

낭만적이며 총명한

총독이었던 커즌경은

지칠 줄 모르는

여행가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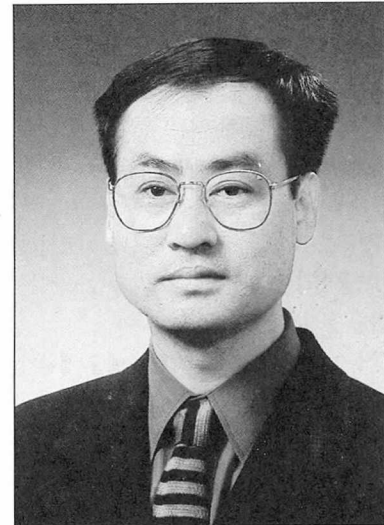
이 책 역시 동아시아의

신비로운 매력에 빠져

한국·중국·일본의 모습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이창훈 교수.

전의 여행, 백년후의 교훈》(리종일 옮김)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것이다.

1894년 9월 청·일 개전의 첫 총성이 울린 직후 몇 주 지나지 않아 출간했는데, 우연하게도 이 책의 소재를 제공한 세 나라 중 두 나라는 전쟁의 주역이었고 나머지 한 나라는 희생양이 됐다. 이 책은 먼 이국을 설명한 역사 기술서나 비평서가 아니며 현장의 사실들을 인내력을 갖고 고찰하여 얻은 확신에 기초하여 쓴 예견서라는 데 그 생명력이 있다.

다시 말해 단순한 한 권의 여행기라기보다 동아시아 3국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상황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고찰한 책이다.

커즌경 이전에도 동아시아 3국을 여행하고 흥미있는 저술을 남긴 이들이 많다. 그들은 주로 동양적 생활방식의 사회적·예술적 측면에 대한 인상을 기술해 놓았다. 그들의 업적도 대단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피지배층인 일반백성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했기 때문에 종종 지배자인 정부의 존재를 망각하곤 했다.

그런 반면 커즌경이 쓴 이 책은 전편에 걸쳐 정치적 기술 흔적이 발견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저술작업을 통한 그의 커다란 공헌이 아닐 수 없다.

커즌경이 이 책에서 제기한 중심 주제는 중국 행정체계의 극심한 부패, 신흥 일본의 자신만만한 포부와 팽창일로에 있는 역량, 경관은 이름답지만 부패하고 무능력한 한국의 우둔함에서부터 이 세 나라가 외세인 서구열강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향받게 되는 국민성, 부존자원, 조직체계 등에 이른다.

커즌경은 이 책에서 대영제국이 동아시아에서 저야 할 무거운 책임 등을 거론하며 동아시아 정책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역설하는 해안을 보여주었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 가치를 거의 인정받지 못한 것도 흥미롭다. ❖

비봉출판사/A5신/494면/12,000원

